

출판계 불황구조의 실상 분석한 책들 속출해

출판계의 지구노력 촉구하는 책들 봄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요즘 일본에서는 출판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가진단' 책들이 봄을 이루며 출간되고 있다. 《출판 파멸》《누가 책을 죽이는가》《출판 대붕괴》《출판 동란》《책은 죽지 않는다》 등이 그것인데, 출판계 불황구조의 실상을 분석하고 활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출판 관련서는 출판계가 지구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지난 1998년 이래 일본 출판시장은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판과학연구소가 집계한 금년도 상반기의 도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유명하다는 아쿠다카와상(芥川賞) 수상작가의 작품 가운데에는 초판을 1천부만 인쇄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 경우 출판사는 작가에게 3천부 인쇄했다고 '거짓'을 고하고 3천부에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출판관행에 안주하면 붕괴할 것

그간에도 '출판' 관련서는 매우 활발히 발행돼왔다. 예를 들어,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153종 이상이 출판됐다. 노세 마사시(能勢仁)가 정리해 출판유통 전문지 《신문화》(2001.1.18)에 발표한 '2000년 출판업계 관련도서 리스트'를 보면 출판사, 편집, 마케팅, 인쇄, 고서, 서점, 도서관, 문고, 잡지, 만화, 출판역사, 번역, 금서, 출판문화론 및 산업론

일본 출판불황의 실태와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근간도서들.

등에 걸쳐 분야가 다양하다.

출판계의 위기구조를 분석한 책의 계보를 보면 2년 전 발행된 오다 미츠오(小田光雄)의 《출판사와 서점은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에 이어, 지난해에는 《출판 파멸》, 올해 들어서는 사노 신이치(佐野眞一)의 《누가 책을 죽이는가》, 고바야시 카즈히로(小林一博)의 《출판 대붕괴》, 세이마루 케이자부로(清丸惠三朗)의 《출판 동란》, 카가와 히로시(賀川洋)의 《출판 재생》, 최근간인 시오자와 미노부(鹽澤實信)의 《책은 죽지 않는다》 등이다.

70세의 베테랑 출판평론가가 쓴 《출판 대붕괴》는 대형 출판사들의 줄 잇는 매출 감소를 여실히 증언한다. 올해 2월에 발행된 후 4만부 이상 팔리며 '출판계 베스트셀러'가 된 《누가 책을 죽이는가》는 정가제도(도서 재판매가 격유지제도) 등 기존의 출판 관행에 안주하며 '파괴력 있는 책'을 만들지 못하는 무능이 출판 불황의 근본 원인이라며 출판계의 급소를 찔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출판 동란》의 지은이는 전후 일본 출판계가 고도성장 과정이 이어지면서 비판적인 자기검증을 못하다가 이제 헤어나기 어려운 불황의 벽에 부딪혔다고 진단한다. 출판계 특유

의 폐쇄성으로 인해 공개적인 자기비판을 주저하며, 겉으로는 침묵하면서도 뒤에서는 책임논쟁만 일삼아왔다는 것이다. 토판과 닷판 등 양대 도매상의 충격적인 적자 결산, 역사 깊은 출판사들의 도산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터넷서점 등 새로운 유통형태는 기존의 유통관행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겹겹하게 출판계 내부의 치부와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에 왕도는 없다

출판 불황 속에서도 베스트셀러와 밀리언셀러가 이어져 해당 분야 전체를 부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출판 저널리스트

로 활약해온 시와자와 미노부의 《책은 죽지 않는다》는 이런 화제의 책이나 베스트셀러를 곧잘 내온 20개 출판사 베테랑기획자들과의 인터뷰집으로, 부제로 붙은 '잘 되는 출판사의 전략'이 암시하듯 불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출판사들의 건투상을 보여준다. 지은이가 제시하는 베스트셀러의 여섯 가지 조건은 제목, 주제, 타이밍, 화제성, 입선전, 정가 등이지만, 베스트셀러에 왕도는 없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지난 6월에 출간된 《출판 재생》은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유통체계, 영업활동의 통합, 다양한 거래처와 판매방법의 자유로운 선택 등 미국식 출판유통을 배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더 이상 업계 내부에서 서로 책임 전가와 자기 입지 세우기에 몰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출판 대붕괴》는 출판사, 도매회사, 서점간의 거래방법 및 거래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공평하고 적절한 거래관계를 재구축하자고 제안한다.

선진국 가운데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일본 출판. 그러나 일본과 달리 불황 탈출법의 천착은 물론, 그 전제가 될 솔직한 자가진단책도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진맥 없이는 명약이 무효다. ■